

수능 국어 고전시가 만점을 위해서는 모르는 작품을 만나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그 힘이 '해석'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국어 고전시가 시험은 객관식인 만큼 '해석'은 출제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읽고 선지를 통해 제시된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은 4주(28일) 동안 고전시가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선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고전시가 지문 독해 시의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체화하고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고2 학력평가 및 고3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엄선한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능 국어 고전시가 만점을 위한 **단계별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제 책과 해설 책을 분권하였으며, **4주 완성 계획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해설 책의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을 채워 가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 완성 계획표

일	지문	문제	해설
01	01	01	P008 P004
02	02	02	P009 P005
03	03	03	P010 P006
04	04	04	P011 P007
05	05	05	P012 P008
06	06	06	P013 P009
07	07	07	P014 P010
08	08	08	P015 P011
09	09	09	P016 P012
10	10	10	P017 P013
11	11	11	P018 P014
12	12	12	P019 P015
13	13	13	P020 P016
14	14	14	P021 P017
15	15	15	P022 P018
16	16	16	P023 P019
17	17	17	P024 P020
18	18	18	P025 P021
19	19	19	P026 P022
20	20	20	P027 P023
21	21	21	P028 P024
22	22	22	P029 P025
23	23	23	P030 P026
24	24	24	P031 P027
25	25	25	P032 P028
26	26	26	P033 P029
27	27	27	P034 P030
28	28	28	P035 P031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으로
4주 후, 달라진 고전시가 지문 독해력과 선지 판단력을 확인해 보세요!

4주 완성 계획표

DAY	수록 작가 및 작품	페이지	
		문제 책	해설 책
1 주차	01 정극인, 「상춘곡」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올고 가는 외기러기~」	P.008	P.004
	02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안민영, 「매화사」	P.010	P.008
	03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정훈, 「탄궁가」	P.012	P.012
	04 이항, 「도산십이곡」 · 이세보, 「상사별곡」	P.015	P.016
	05 권호문, 「한거십팔곡」 · 안조원, 「만언사」	P.017	P.020
	06 박인로, 「선상탄」 · 이원익, 「고공담주인가」	P.019	P.024
	07 김인겸, 「일동장유가」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 / 정훈, 「월곡답가」	P.021	P.028
2 주차	01 윤선도, 「어부사시사」 · 박인로, 「상사곡」	P.026	P.034
	02 이정, 「풍계육가」 · 정철, 「성산별곡」	P.030	P.038
	03 김득연, 「산중잡곡」 · 위백규, 「농가」 / 정학유, 「농가월령가」	P.034	P.042
	04 권구, 「병산육곡」 · 작자 미상, 「봉선화가」	P.038	P.046
	05 윤선도, 「견회요」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P.042	P.051
	06 박인로, 「자경」 · 홍순환, 「연행가」	P.046	P.055
	07 신광수, 「단산별곡」 · 정훈, 「용추유영가」 / 장경세, 「강호연군가」	P.050	P.060
3 주차	01 정철, 「사미인곡」 · 이이, 「고산구곡가」	P.056	P.068
	02 정철, 「관동별곡」 · 신희, 「방옹시여」	P.060	P.074
	03 송순, 「면앙정가」 · 박인로, 「입암십구곡」	P.066	P.081
	04 조위, 「만분가」 · 이정환, 「비가」	P.070	P.087
	05 허난설헌, 「규원가」 · 이휘일, 「전가팔곡」	P.074	P.094
	06 박인로, 「누항사」 · 이색, 「부벽루」	P.080	P.100
	07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이흥유, 「산민육가」 / 작자 미상, 「유산가」	P.084	P.106
4 주차	01 정철, 「속미인곡」 / 임유후, 「목동문답가」	P.092	P.114
	02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P.098	P.120
	03 사시가의 특징과 변모 양상 / 황희, 「사시가」 / 신계영, 「전원사시가」	P.102	P.124
	04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 작자 미상, 「동동」 / 작자 미상, 「가시리」	P.106	P.130
	05 「개야 찌치 말라~」 / 「개야 좃지 마라~」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 작자 미상, 「살구」	P.110	P.135
	06 「나의 미평흔 뵈을~」 / 「굴 껌는 청산이러나~」 / 「동풍이 건듯 부러~」 / 「청춘 소년드라~」 / 「늬기 설은 줄을~」 / 「세월이 여류후니~」	P.114	P.140
	07 「돌 쓰자 비 써나니~」 / 「객창 돛눈 달의~」 / 「주렴에 빗친 달과~」 / 「내 무음 버혀 내어~」 / 「달아 붉은 달아~」	P.118	P.145

1주차

지문 독해의 원리

1주차에서는 본격적인 선지 판단 훈련에 앞서 고전시가 지문을 객관적으로 읽는 훈련을 할 거야.

1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30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1주차 1일째 SET 0

드래잉 날짜 월 일

▶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홍진(紅塵)에 못된 문내 이 내 생애 엮디온고
 넷사들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막(至樂)을 무얼 짓가
 화자는 _____(속제)에 묻힌 사립들에게 산림(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애가
 _____의 흥분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즐겁다고 자랑하고 있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박계수(碧溪水) 앞의 두고
 송죽 울음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몇 인의 조가집 말에 _____가 호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에 사는 자신의 삶이
 _____과 같다고 자랑하는 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
 감정 대부분이 느껴진다.

엮고계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어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묻어 냐가 붓으로 그려 냐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문물마다 원스럽다
 도화행화(桃杏花)로, 삼구불가(三句 불가) 최고 녹양방초(綠楊芳草)를 박물과 향기로운 꽃)가 푸른 물 풍경을
 보며 _____(시공)을 찬양하고 있다.
 수물에 우는 새는 춘기(春鶯)를 못내 개워 소리마다 교래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이 다름소냐
 물기운에 흥취를 느끼는 것은 _____와 화자가 마찬가지로 _____(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하나가 될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진다.
 시비에 겨러 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 후야 산림(山田)이 적적혼디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울음리: 백백하게 우거든 속.
 • 소요음영: 자유로이 찬양해 걸으며 시를 읊조림.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에 묻혀 물 풍경을 한가롭게 즐기며 (외로운/
 만족감을 느끼는 "나"

1. 뒷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물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못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사자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X
- ② 자연 풍경에 등회된 화자의 흥취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X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 말을 건네는 방식: 시에서 표현적 특징이 있거나 가사의 특징을 고려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 나타나게 하는 것.
 - 예) 홍진에 못된 문내 이 내 생애 엮디온고 / 몇사들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 ②
 -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경관과 자연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하는 태도.
 - 예) 송죽 울음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절함은 언제 지고 낙흥은 언제 잔다 등

정답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용·현상

고전시가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계절(봄·여름·가을·겨울)을 직접 명시하지도 하지만, 특정 계절과 관련된 사물(자연물)이나 현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기도 해, 그래서 각 계절을 환기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리 공부해 두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상운곡은 처용의 봄을 나타내는 한자인 ‘춘(春)’이 들어간 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봄의 계절감이 나타나는 작품이며, 봄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봄을 배경으로 한 고전시에서는 ‘도회(복숭아꽃)’, ‘행회(삼구불가)’, ‘이회(매화)’, ‘두견회(진달래꽃)’ 등의 자연물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이 외에도 ‘춘민하(춘기운이 가득하다)거나, ‘중경(봄빛)이 떠치나기도 해, 추가로 ‘녹음(푸른 그늘)’, ‘남풍(푸른 바람)’, ‘추풍(추풍)’, ‘국화’, ‘명운(누런 구름, 국적이 익은 들녘)’, ‘새리’ 등은 여름, ‘백설’, ‘절동 죽죽’, ‘복숭’ 등은 가을의 계절감을 환기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자. 특정 계절, 혹은 사계절을 모두 다루는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서 특정 계절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야.

- 1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워 보자. 선택형으로 제시된 부분은 둘 중 옳은 설명에 표시하면 돼. 이때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 '화자'와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을 찾아 지문에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마! 문제를 풀 때는 고전시가 원문을 스스로 해석해보고, 이후 해설 책의 현대어 풀이를 다시 읽어 보며 고전시가 해석 능력을 키워나가자.
- 2 지문에서 화자와 대상을 파악했다면, 이를 토대로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박스의 빈칸을 채우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 3 1번 문제는 지문의 핵심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했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하며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자.
- 4 2번 문제는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이야. 해설 책에 제시된 문학 개념어의 정의와 지문 속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 보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실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 5 고전시가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하나 더 알고 가자'에 정리해 두었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틈날 때마다 봐두면 고전시가 학습에 도움이 될 거야.

2 / 3 / 4 주차

선지 판단의 원리

2~4주차에서는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선지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거야.

2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화자는 '일명편쥬(한 척의 작은 배)'에 갈 때는 '니'를, 물 때는 '____'를 실어 함께 돌아온다고 함

선지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돌'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 ×

② **작품** 화자는 '구존비'가 그치고 '____'를 돌려메니 '____'를 못 참겠다고 함

선지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낮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간감을 고조시키는군. ○ ×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마찬가지로 ① - ② - ③ - ④의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문제를 풀 후,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 문제의 선지를 다시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 각 선지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훈련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는 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야.

3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보기> _____에서는 지상과 달리 끝없는 사랑이 _____ 됨

선지 입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입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

작품 '이 몸 삼기실 제 남을 초차 삼기시니 / 혼신 연분이며 _____ 모를 일이런가'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을 배워볼 거야.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근거를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하면 돼.

4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 설명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30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4월 4일 15:00

다음 글을 읽고 화자의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 속오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정실되어 조선 시대에 이 공중 연방(宮中)에서 존송되어 불연 노예를 가리킨다. 고려 속오는 기원(奇原) 정실은: 민간의 노예가 편이되었다. 고려 속은 _____에서 정실 노예로 _____ 되었다.

민간의 노예가 궁중 문자의 노예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경인 『사경(詩經)』의 '동(東)에서 포을 수 있다. 동'에는 민간의 노예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예가 대부분이다. '동'에 실린 노예는 _____

한편, 고려 속오와 '시경'의 '동'은 궁중정(宮中) 노예가 아닌 민간의 노예에 실린 고려 속오는 궁중 궁중정(宮中) 노예가 아닌 민간의 노예이다. 고려 속오는 민간의 사랑 노예가 궁중정(宮中) 노예로 편이 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건넨 유가의 관념을 통해 볼 수 있는 유가의 정치를 '연분'이 한 유물이 구정 질 때 민간의 편에 붙어있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궁중 연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잊혀져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깨끗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나타나는 것이 잘라 주고 _____

1.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의 '이 몸'은 궁중정(宮中)의 노예로 볼 수 없다.
 ㉡ (다)의 (나)에서 '이 몸'은 궁중정(宮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여겨 볼 수 있으나, (나)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나)의 (나)에서 '이 몸'은 궁중정(宮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여겨 볼 수 없다.
 ㉣ (나)의 '이 몸'은 궁중정(宮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여겨 볼 수 없다.

4주차에서는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에 대한 독해와 융합 문제 풀이 훈련을 해 볼 거야. 설명글을 읽고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며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이후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설명글의 관점을 바탕으로 선지를 꼼꼼하게 판단해 보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선지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어.

1주차 학습 안내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시 지문을 읽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화자와 시적 대상,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확인해야 해. 화자가 시적 대상에 관해 가진 정서나 태도가 곧 시의 주제이기 때문이지. 이를 위해 1주차에서는 각 구절의 내용에 대한 이해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과의 흐름’과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박스를 마련해 두었으니 빈칸을 채우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 보면서 시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자.

그런데 고전시가는 오늘날과는 표기가 달라 이러한 이해를 위해 지문을 읽는 것조차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고전시가 학습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고전시가 해석이야. 어려워도 스스로 해석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책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를 실지 않았어. 그러니 문제를 풀 때에는 최대한 스스로 작품을 해석해 보고, 이후 해설 책의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해석과 비교하며 고전시가 해석 훈련을 해 나가자.

지문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파악했다면 1번 문제를 풀어 자신의 이해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2번 문제를 통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학습하자. 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쳤다면 해설 책을 참고해 잘한 부분, 아쉬운 부분 등을 확인하여 정리해 두자.

고전시가는 학습 초반에는 현대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학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현대시보다 이해가 쉬울 수 있어. 수능에 출제되는 고전시가의 대부분은 사대부들이 쓴 것이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은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거든. 그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은 그러한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 방식도 서로 비슷했어. 따라서 고전시가에 자주 사용되는 시어나 표현, 주제 의식을 이해해 두면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어. 이처럼 알아두면 고전시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배경 지식을 해설 책의 ‘하나 더 알고 가자’에 실어 두었으니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두자.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흔고
 넷사롬 풍류롤 미출가 못 미출가
 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무물 것가
 화자는 _____(속세)에 묻힌 사람들에게 산림(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애가
 _____의 풍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즐겁다고 자랑하고 있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서라
 몇 칸의 초가집 앞에 _____가 흐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에 사는 자신의
 삶이 _____과 같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
 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군.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롭다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가 피고 녹양방초(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가 푸른 봄 풍경을
 보여 조화신공(_____의 솜씨)을 찬양하고 있군.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룰소나
 봄기운에 흥취를 느끼는 것은 _____와 화자가 마찬가지로 _____(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하나가 됨)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山日)이 적적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한중진미를 (혼자/함께) 즐기고 있군.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으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호새
 야춤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호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자는 _____들에게 산책, 낚시 등을 하며 함께 자연을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어. 또한
 _____을 마시며 취흥을 즐기고자 하네.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열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 7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갓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취흥을 즐기던 화자는 청류(맑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_____(복숭아꽃)를 보고 무릉
 도원, 즉 이상향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뽕뽕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에 묻혀 봄 풍경을 한가롭게 즐기며 (외로움/ 만족감)을 느끼는 '나'
------------	---

1. 밑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O X
- ② 자연 풍경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X

2주차 학습 안내

1주차에는 주로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선지 진술 간 일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2주차에는 한발 더 나아가 작품에 대한 감상·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도 풀어볼 거야. 이는 주로 작품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거나 관습적 해석을 토대로 특정 구절을 선지의 설명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2주차의 훈련을 통해 고전시가 작품 해석에 적용되는 관습적 해석과 작품에 반영된 창작자들의 사고 방식을 공부해 보자.

2주차에서도 우선 1주차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으면서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거나 선택형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 돼. 이를 토대로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2주차에서 새로 추가된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해 1번 문제의 선지를 하나씩 다시 분석해 볼 거야. ‘선지 판단의 공식’의 빈칸을 채우면서 선지별로 정오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각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지. 처음 문제를 풀 때의 자신의 사고 과정과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다시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올바른 정오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과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야.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

도롱이에 호미 걸고 빨 굵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시고 <제2수>
비옷(도롱이)을 쓰고 _____를 챙겨서 _____를 몰고 길을 나서는 중에 함께 가자고 하는 벗을 만났다. 사용된 시어들을 보니 농가의 일상을 담아낸 내용인 것 같지?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길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제2수>에서 화자가 호미를 챙겨 길을 나선 것은 밭에 우거진 _____ 같은 잡초를 걷어 내기 위해서였다 봐. <제3수>에서는 구체적인 노동의 현장을 그려내고 있는 거지.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_____이 내리쬐는 한낮에 열심히 일을 하느라 _____이 떨어진다. 잠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면서 길게 _____을 부는 모습에서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잊지 않는 여유로움을 엿볼 수 있어.

- 위백규, 「농가(農歌)」 -

- *품 진: 품앗이를 한.
- *둘러내자: 휘감아서 걷어 내자.

화자와 대상의 관계	땀 흘리며 _____하는 농가의 일상을 보여 주는 사람
------------	--------------------------------

(나)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첫 행에서는 입하, 소만이라는 구체적인 _____와 함께 계절적 배경을 상세히 제시하였어.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뽕뽕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노래한다
윤력 _____월의 초여름을 맞은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닫았도다
이 시기에 농가에서는 _____와 _____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구나.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눈을 썩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농가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였어. _____를 많이 가꿀 것, 수수, 동부 등을 심은 밭에 다른 농작물은 (많이/적게) 심을 것, 거름을 마련할 때는 풀을 섞을 것, 모내기를 일찍 시작하라는 권유 등 농가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지.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부룩: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화자와 대상의 관계	초여름 _____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농사일에 대한 _____의 말을 전하는 사람
------------	---

1.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나)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 ② (가)에는 (나)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 ③ (나)에는 (가)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 ⑤ (가)와 (나)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O X
- ② (가)와 (나) 모두 자연을 탈속적 공간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O X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선지 판단의 공식



2 주자

①

작품 (가): 밭에 우거진 '바랭이 _____'을 걷어 내며 노동하는 농부의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이라 _____'을 맞아 농가에서 해야 할 농사일로 '_____ ' 가꾸기,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등을 심은 밭에 '부룩을 적게 하기 등을 제시함

선지 → (가)에는 (나)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②

작품 (가): '_____'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던 농부가 잠시 바람을 쐬며 '_____'을 부는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은 자연의 풍경과 농가의 일상, 이 시기에 해야 할 _____에 대해 언급함

선지 → (가)에는 (나)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③

작품 (가): '호미'를 챙긴 화자가 '검은 _____'를 몰고 밭으로 향하는 모습, 밭에서 잡초를 걷어 내며 열심히 일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아 농가에서 해야 할 농사일로 '_____ 치기'와 '_____ ' 가꾸기, '수수 동부 녹두 참깨'를 재배하는 일 등을 제시함

선지 → (나)에는 (가)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④

작품 (가): 밭에 우거진 잡초를 걷어 내며 노동하는 _____의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아 '농사'와 '누에치기 한창이라 / 남녀노소 몰두하니 _____이 없'는 상황을 제시함

선지 →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⑤

작품 (가): '_____ '를 챙긴 화자가 '검은 소'를 몰고 밭으로 향하는 모습, 밭에서 잡초를 걷어 내며 열심히 일을 하다 잠시 _____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아 '농사'와 '누에치기 한창이라 / _____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는 상황을 제시함

선지 → (가)와 (나)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3주차 학습 안내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보기>는 지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즉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 작품에 활용된 기법의 소개 등을 통해 제시된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지. <보기> 문제는 대체로 3점인 경우가 많고 오답률도 높은 편이야. <보기>가 포함된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진술이 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도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에 대비해 3주차에서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각 선지의 <보기> 속 근거, 작품 속 근거를 확인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 이러한 훈련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작품-<보기>-선지 내용 간의 연결 관계를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답 선지가 구성되는 방식이 눈에 보일 거야. 3주차 훈련을 통해 <보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지를 판단해 보자.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심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화자는 입과 자신의 _____은 하늘이 아는 일, 즉 하늘이 정해준 일이라고 생각해.

나 후나 점어 잇고 님 후나 날 괴시니
 이 무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평생 입과 함께 있고자 했던 화자가 지금은 입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아 입과 _____한 것 같아.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년(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러오니
 올 저기 비스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臙脂粉) 잇나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광한전은 천상계에 있는 궁전을 말해. 화자는 입을 모시고 광한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입과 이별하여 _____에 내려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내려 올 적에 빛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 삼 년이며, _____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여성이며 입과 이별한 지 삼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무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누니 한숨이오 디누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흔(有限) 혼디 시롬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들 흐르듯 호눈고야
 염냉(炎涼)이 썰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화자는 유한한 _____과 달리 끝없는 _____, 물 흐르듯 흐르는 세월에 호느끼고 있어.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창(窓) 맞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곱득 냉담(冷淡) 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동풍이 불어 쌓인 _____을 헤쳐 내고, _____가 피는 것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은 이른 봄이야. 아직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화의 _____(그윽한 향기)이 풍기고 있군.

황혼의 둘이 조차 버마티 빗치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황혼의 달이 베개 밑에 비출 때 화자는 달빛이 _____이신가 생각해. 저 _____를 꺾어내 입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는 화자에게서 입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네. 참고로 작가인 정철이 사대부 남성이고 당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고려하면, (남성/여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남성/여성) 화자인 '나'를 내세워 입금을 임으로, 임금께서 계신 궁궐을 천상의 _____으로 표현하여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 정철, 「사미인곡」 -

화자와 대상의 관계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 입에게 _____를 보내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나'
------------	---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윗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입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입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입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성은 유흔'과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냉'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에서, 입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
- ②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 ① <보기> _____에서는 지상과 달리 끝없는 사랑이 _____됨 + 작품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혼신 연분이며 _____ 모를 일이런가'
- 선지**▶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_____이 지속됨 + 작품 '나 후나 점어 잇고 님 후나 날 _____',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노고'
- 선지**▶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 이 지속됨 + 작품 '_____ 님을 뵈셔 광한년의 올났더니 / 그 더디 엇디 후야 _____에 느려오니 / 올 저기 비슨 머리 헛들언 디 삼 년일쇠'
- 선지**▶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 이 지속되며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_____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함 + 작품 '인성은 _____훈디 _____도 그지업다 / 무심헌 세월은 물 흐르듯 후눈고야'
- 선지**▶ '인성은 유흔'과 '무심헌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보기> 천상과 다른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힘겨워하는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_____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냄 + 작품 '염낭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 듯거니 보거니 _____일도 하도 할샤'
- 선지**▶ '염낭'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4주차 학습 안내

4주차에서는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에 대한 독해와 융합형 문제의 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설명글은 고전시가 작품 앞이나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설명글 사이에 작품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또한 설명글에서 작품명을 직접 언급하며 설명글과 관련지어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글에서는 문학 이론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만 제시하고 설명글과 작품의 관련은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 즉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과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니, 많은 형태를 접하면서 연습해 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4주차에는 다양한 융합 지문과 문제를 수록했어.

먼저 사과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며 설명글과 고전시가 지문을 읽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자. 이후 3개의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과 2번 문제의 선지들을 다시 분석해 보면 돼. 빈칸을 채우며 설명글과 작품을 연결하여 각 선지의 정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처음 문제를 풀 때 거쳤던 자신의 사고 과정과 비교해 보자.

고난도 융합형 문제의 정오 판단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지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겨나는 의미에 대한 사실적 판단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4주차의 훈련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① 내면의 정서, 의식을 대상에 _____ 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② 외부 세계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념을 내면으로 _____ 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③ 자기와 외부 세계를 _____ 하여 양자에 대해 새롭게 해석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①, ②: 자기와 _____ 의 거리가 가까워짐, _____ 관계 형성 / ③: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친화적 관계 형성 혹은 _____ 관계 유지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짐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뉘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화자는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삶에 대해 (부끄러움/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화자를 (부러워하는/비웃는) 이들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겠지.

보리밥 풋노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빻긋 뉘긋의 슬쿠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보리밥과 풋나물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_____ 에서 한가로이 노는 생활을 누리고 있네. 이 외의 일들은 _____ 지 않다고 하며 세속적 삶에 대한 (배타적/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호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제3수>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_____ 를 바라보는 반가움이 그리워하던 임을 만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네. 산은 _____ 도 없고 웃지도 않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지.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닳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호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뎃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비교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높은 벼슬/소부 허유의 삶) 보다 자연을 벗 삼아 한가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루실샤
인간 만수(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두토리 엄슨 강산(江山)을 디희라 호시도다 <제5수>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_____ 다고 하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 _____ 를 하나도 말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과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뜻이겠네. 자연에는 _____ 이가 없다는 말은 다투는 일이 많은 정치 현실의 혼란스러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강산이 도타 혼돌 내 분(分)으로 누언노냐
넌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호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제6수>

임금의 _____ 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여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어. _____ 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네.

- 윤선도, 「만흥(漫興)」 -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 속에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임금의 _____ 에 감사하는 '나'
------------	---



1.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2.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윗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똥'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3.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X
- ② (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O X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제1수>에서 화자는 '산수 간 _____'에 '_____'을 짓고 산다고 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_____'이 좋지만 이는 '_____'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러냄

선지 →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O X

② 작품 <제2수>에서는 '_____'을 먹는다고 함 → <제3수>에서는 '_____'을 들고 혼자 앉아 '먼 똥'을 바라본다고 함

선지 →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O X

③ 작품 <제2수>에서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_____'라고 하여 설의적 표현이 나타남 → <제5수>에서 '다만당 두토리 업슨 강산을 _____'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남

선지 →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O X

④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_____ 혼자 안자' 바라보는 '먼 똥'에 대해 '_____을 느끼고 있음 → <제4수>에서 화자는 '_____'이나 '_____'보다 '소부, 허유'처럼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이 더 낫다고 함

선지 →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O X

⑤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똥'을 바라보며 '_____'을 느끼고 '몰내 도하하'고 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_____'라고 하며 감사함을 드러냄

선지 →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O X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2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_____ 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_____ 관계가 되기도 함



작품

'산수 간 바회 아래 뒤희를 짓노라 후니 / 그 모른 놈들은
_____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얌의 뜻이는 _____
인가 후노라'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②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_____ 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_____ 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함



작품

'바윗 곳 뭉?'의 슬꺾지 노니노라 / 그 나쁜 녀나쁜 이야기
_____ 이시랴'



'바윗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③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_____ 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_____ 관계를 형성함



작품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를 부라보니 / 그리던 님이 오다
_____ 이 이리후랴 /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몰내
_____ '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뉘'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④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_____ 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_____ 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작품

'누고셔 _____ 도곤 낫다 후더니 _____ 이 이만후랴',
'아마도 _____ 을 비길 곳이 업세랴'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⑤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_____ 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_____ 관계를 형성함



작품

'강산이 도타 혼돌 내 분으로 누얼누냐 / _____
_____ 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고3 2020학년도 9월 모평 - 정극인, 「상춘곡」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흔고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나의 이 생활이 어떠한가
 넷사름 풍류톨 미출가 못 미출가
 (나의 이 풍류가)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 중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무를 것가
 (왜 그들은)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화자는 홍진(속세)에 묻힌 사람들에게 산림(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애가 옛사람의
 풍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즐겁다고 자랑하고 있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몇 칸짜리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서라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자연의 주인(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몇 칸의 초가집 앞에 벽계수가 흐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에 사는 자신의 삶이
 풍월주인과 같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군.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엇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있고
 복사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흐르도다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물주가) 칼로 마음잡힌(치수에 맞게 잘라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가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아담스럽구나(감탄스럽구나)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가 피고 녹양방초(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가 푸른 봄 풍경을
 보며 조화신공(조물주의 솜씨)을 찬양하고 있군.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지저귀는)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듯하
 구나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로소나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나의) 흥겨움이 (새의) 흥겨움과 어찌) 다르겠는가
 봄기운에 흥취를 느끼는 것은 새와 화자가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하나가 됨)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사립문(의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소요음영*하야 산일(山日)이 적적하디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읊조리는 산속의 하루가 고요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한가로운 가운데 맛보는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우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한중진미를 혼자 즐기고 있군.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여보게 이웃 사람들이 산수 구경 가지구나
 답청(踏靑)이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 호새
 답청(봄에 피랑개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함)은 오늘 하고 욱기(명예와 이익을 잊고 개울
 에서 목욕을 하며 유유자적함)는 내일 하세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호새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긋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이제 막 익은 술을 칩베로 만든 두건(술을 걸러 마시는 도구)으로 걸러 놓고
 곱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술잔의)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자는 이웃들에게 산책, 낚시 등을 하며 함께 자연을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어. 또한 술을
 마시며 취흥을 즐기고자 하네.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온화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바람에 실려 온) 맑은 향기는 술잔에 담기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술동이 비엇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가를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어른은 지팡이 잡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노니 도화(桃花)로다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은 복숭아꽃이로다
 무릉이 갓갓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무릉도원(신선이 사는 곳, 낙원, 이상향)이 가까이 있구나 (복숭아꽃이 떠내려온)
 저 들이 바로 그곳인가
 취흥을 즐기던 화자는 청류(맑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복숭아꽃)를 보고 무릉도원,
 즉 이상향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뽕뽕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화자와 대상의 관계	산림(자연)에 묻혀 봄 풍경을 한가롭게 즐기며 만족감을 느끼는 '나'
------------	--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화자는 '도화행화', '녹양방초'와 같은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붓으로 그려 낸가'라며 감탄하고, '수풀에 우는 새'가 '춘기'를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듯하다고 말한다. 이는 새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봄에 느끼는 흥취를 표현한 것일 뿐,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넋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과 비교하여 그에 못지 않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서라'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자연을 주체적으로 즐기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답청이란 오늘 후고 욱기란 내일 후새'에서 오늘은 산책을 하고 내일은 냇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히 조수후새'에서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뉘시를 한다는 것을 나열하여,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화자는 바람에 실려 온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화자가 주변의 자연과 현재 마시거나 입은 것을 연계하여 생각하며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청류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 | 로다'와 '무릉이 갓갑도다'를 통해 화자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며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이상향을 떠올린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 **말을 건네는 방식:** 시에서 표면적 청자가 있거나 가상의 청자를 고려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근거 '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하고 / 냇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② ○

•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공간과 자연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

근거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서라',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 등

더 알고 가자
하나

계절감을 드러내는 사물 · 현상

고전시가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계절(봄 · 여름 · 가을 · 겨울)을 직접 명시하기도 하지만, 특정 계절과 관련된 사물(자연물)이나 현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기도 해. 그래서 각 계절을 환기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리 공부해 두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상춘곡」은 제목에 봄을 나타내는 한자인 '춘(春)'이 들어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봄의 계절감이 나타나는 작품이야. 봄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가는 계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봄을 배경으로 한 고전시가에서는 '도화(복숭아꽃)', '행화(살구꽃)', '이화(배꽃)', '두견화(진달래꽃)' 등의 자연물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이 외에도 '춘만하다(봄 기운이 가득하다)'거나, '춘광(봄빛)'이 비치거나, '춘풍(봄바람)'과 '동풍'이 부는 등의 현상을 통해 봄의 계절감이 드러나기도 해. 추가로 '녹음(푸른 그늘)', '남풍' 등은 여름, '추풍낙엽', '국화', '황운(누런 구름, 곡식이 익은 들판)', '서리' 등은 가을, '백설', '엄동 혹한', '복풍' 등은 겨울의 계절감을 환기한다는 점도 참고해 두자. 특정 계절, 혹은 사계절을 모두 다루는 고전시가를 공부하면서 특정 계절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야.

고3 2021학년도 9월 모평 -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① 내면의 정서, 의식을 대상에 투영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② 외부 세계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념을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③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 대비하여 양자에 대해 새롭게 해석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①, ②: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짐, 친화적 관계 형성 / ③: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친화적 관계 형성 혹은 소원한 관계 유지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산과 물 사이(자연 속)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운는다 혼다마는
그것(화자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하지만
어리고 하얗의 뜻이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어려서는 시골뜨기인 사람(화자)의 뜻(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화자는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화자를 **바웃**하는 이들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겠지.

보리밥 **푹**·물을 얼마초 머근 후(後)에
보리밥 푹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윗 **긱**의 슬쿠지 노니노라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보리밥과 푹나물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물가에서 한가로이 노는 생활을 누리고 있네.
이 외의 일들은 **부럽지** 않다고 하며 세속적 삶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 바라보니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허라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할까
말씀도 우움도 아녀도 못내 **도하**호노라 <제3수>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먼 뉘(산)**을 바라보는 반가움이 그리워하던 임을 만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네. 산은 **말도** 없고 **웃지도** 않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지.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낮다 허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허라
누군가 (자연이) 삼공(삼정승의 지위)보다 낮다고 허더니 만승(만 개의 수레를 부리는 천자의 지위)이 이만하겠는가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지금 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자연에 은거한 중국의 은자)가 약았구나(영리했구나)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아마도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즐거움을 비길 곳이 없도다
비교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높은 벼슬**보다 자연을 벗 삼아 한기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루실사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시어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인간 만사의 일 가운데 하나도 아니 맡겨
다만당 두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하시도다 <제5수>
다만 다들 사람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도다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고 하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 **인간 만사**를 하나도 맡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과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뜻이겠네. 자연에는 **다들** 이가 없다는 말은 다루는 일이 많은 정치 현실의 혼란스러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강산이 도타 혼돌 **내 분(分)**으로 누언노 나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게 되었도다
아무리 값고자 허야도 **히울** 일이 업세라 <제6수>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임금의 **은혜**를 값을 길이 없다고 하여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어. **자연(강산)**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네.

- 윤선도, 「만흥(漫興)」 -

화자와 대상의 관계	자연(강산, 산수) 속에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
------------	--

1.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제1수>에서 '산수 간 바회 아래'에 지은 '뛰집'은 화자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므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자신의 분수로 여기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제6수>의 '강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념적인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 임금에게 감사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제2수>의 '보리밭 풋노물'은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볼 수 있으나, <제3수>의 '잔'이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뒀'을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제2수>의 '그 나쁜 녀나쁜 일'이 부를 줄이 이시랴'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설의적 표현일 뿐, 화자가 이를 통해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문이 <제5수>를 통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제3수>에서는 화자가 '먼 뒀'을 바라보며 반가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현재에 대한 긍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수>에서는 '삼공'과 '만승'에 지지 않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을 뿐, 역사에 대한 부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제3수>에서는 화자가 '먼 뒀'을 바라보며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모두 '님군 은혜' 덕분임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며, 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뒀'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가움이 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반가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제3수>에서 화자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외부 세계의 '뒀'에 투영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화자와 외부 세계의 '님'을 상호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으므로, 화자와 '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뒀'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풀이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1수>에서 화자는 '산수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 사는 삶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고 있으나, 그 뜻을 모르는 '놈들'은 화자를 보고 '윤는다'고 하였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놈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대비하여 '놈들'과의 거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 ② '바윗 곳 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2수>에서 화자는 '바윗 곳 뉘?'에서 실컷 노닐면서 그러한 즐거움 외에 '녀나쁜 일'은 부러워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쁜 일'을 대비함으로써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제4수>에서 화자는 '님천'에서 '한흥'을 즐기는 삶이 '삼공'이나 '만승'의 지위를 누리며 사는 삶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에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외부 세계인 '님천'에 투영하여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분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제6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강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이 모두 '님군 은혜' 덕분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외부 세계인 '님군'에 투영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3.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 **반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여 오히려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

• **자조**: 자신을 비웃음, 스스로에게 냉소하는 것.

근거 (나의 화자가 스스로를 '어리고 하얗(어리석은 시골뜨기)')이라고 한 것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임.

② ○

• **영탄**: 생각이나 느낌을 억누르지 않고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감탄사와 감탄 어미의 사용을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 명령이나 권유, 혹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기도 함.

근거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반가움이 이리허라', '두토리 업슨 강산을 덕히라 후시도다' 등

하나 알고 가자

'소부'와 '허유'

'소부'와 '허유'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을 산 인물들로, 고전 시가에서 자주 언급돼. 허유는 요나라의 황제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 주겠다고 한 말을 듣고 귀가 더럽혀졌다고 하며 영천에서 귀를 씻은 다음 '기산'으로 들어가 은거한 인물이야. 한편 소부는 소에게 물을 먹이려 강가로 끌고 왔지만,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이 더럽다고 하며 물을 먹이지 않았다고 전해지지. 「만홍」에서 화자는 소부와 허유가 약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간 그들의 삶을 영리하다고, 혹은 바람직하다고 여긴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

🔍 1번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제1수〉에서 화자는 '산수 간 바회 아래'에 '뒤풀'을 짓고 산다고 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이 좋지만 이는 '님군 은혜'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러냄

선지 →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작품

〈제2수〉에서는 '보리밥 꽃노뭇'을 먹는다고 함 → 〈제3수〉에서는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본다고 함

선지 →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작품

〈제2수〉에서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라고 하여 설의적 표현이 나타남 → 〈제5수〉에서 '다만당 두토리 업슨 강산을 덕히라 후시도다'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남

선지 →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잔 들고 혼자 안자' 바라보는 '먼 뒀'에 대해 '반가움'을 느끼고 있음 → 〈제4수〉에서 화자는 '삼공'이나 '만승'보다 '소부, 허유'처럼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이 더 낫다고 함

선지 →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뒀'을 바라보며 '반가움'을 느끼고 '물내 도하후'고 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님군 은혜'라고 하며 감사함을 드러냄

선지 →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



2번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 ①
-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함
- 작품** '산수 간 바회 아래 뒹집을 짓노라 후니 / 그 모른 놈들은 **울는다** 훈다마는 /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본인**가 후노라'
- 선지**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 ②
-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함
- 작품** '바윗 곳 뭉?'의 슬궤지 노니노라 /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름 줄이** 이시랴'
- 선지** '바윗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 ③
-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 작품**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뒹을 바라보니 /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후랴 /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물내** **도하후노라**'
- 선지**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뒹'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 ④
-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 작품** '누고서 **삼공**도곤 낫다 후더니 **만승**이 이만후랴', '아마도 **님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업세랴'
- 선지**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 ⑤
-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 작품** '강산이 도타 혼돌 내 분으로 누연느냐 /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선지**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